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5668.05 (+113.83)	794.78 (+33.96)	3.854 (-0.013)	1334.25 (+2.85)

원샷 환경평가로 ‘반도체 양산’ 박차

메가특구법 성공의 조건

①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이재명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 될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반도체 2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 총 800조원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자하는 만큼,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 기업, 지역의 명운이 걸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근로시간 제 유연화·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방안·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조성 방안 등 쟁점이 될 사안을 4회에 걸쳐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예상 대폭 단축시 2029년 첫 양산 가능 환경단체, 절차 단축에 강력 반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반도체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입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특별법에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취지를 왜곡해 형식적 절차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 ‘전격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축소하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이나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양평가로 나뉘져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가 250만평에 달하는 만큼,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전 환경영향평가는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회의 등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이 메가특구법에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다중채무에 고용 한파까지… 청년 부실 우려

대출 7건 이상 청년비율 13.6% 대출액 적지만 절반은 ‘저신용자’

청년층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다중채무 부담에 고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통합 상환 체계 구축, 사후관리 강화 등 청년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뒷받침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층, 다중채무 비중 전 연령대 최고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청년 부채 현황 채무조정제도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7건 이상 보유한 19~34세 이상 청년층 비율은 13.6%로 집계됐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40대(8.5%), 50대(7.5%)의 약 1.6~1.8배, 60대 이상(4.6%)의 약 3배에 달한다.

문제는 규모보다 구조에 있다. 청년층의 대출 보유액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1.8%, 500만원 미만 21.7%를 기록하는 등 소액 대출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의 절반가량(49.8%)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

대의 저신용자 비중이 30%대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세 지표에서도 청년층 부실이 두드러졌다. 청년층의 90일 이상 장기연체율은 2020년 12월 1.8%에서 지난해 6월 2.3%로 확대되면서 가장 큰 상승폭(0.51%p)을 보였다. 같은 기간 40대는 0.16%p, 50대는 0.14%p, 60대 이상은 0.10%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다만, 이는 단순한 투기적 행태가 아닌 구조적 소득불평등과 자산 격차에 대한 청년세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진단이다.

◆ 고용 감소, 쉬웠음 청년 증가

최근에는 고용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청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청년 고용률은 66.4%다. 전 분기 대비 0.9%p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7%p 하락했다.

〈3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원·달러 환율, 2년여 만에 최저수준

이달 원·달러 환율이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원·엔 재정환율 역시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서울 중구 한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뉴스시스

“기업가치 할인” vs “투자재원 자체 확보”

솔리다임, 美 증시 상장 이견 주주들, 성장과실 뒀 감소 우려 BI, 지분을 하락 실적영향 제한적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이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는 중복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할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솔리다임 상장이 SK하이닉스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미국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UBS그룹도 솔리다임의 IPO 주관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솔리다임이 이르면 내년 IPO에 나설 수 있으며, 기업가치는 최대 1000억 달러(약 134조원)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의 낸드·SSD사업부를 인수해 2021년 설립한 미국 회사다. 솔리다임이 미국 IP

O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에 따른 메모리 수요 확대가 자리한다.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며 2024년 2분기(4~6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최근 메모리 부족 사태로 메모리 ‘몸값’이 올라가며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도 뛰게 됐다. 솔리다임은 올해 8월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코어위브와 기업용 SSD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델테크놀로지스, 텐센트홀딩스 등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국민들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비공개 압박 이해 어려워”
▲한성숙 총리 “남북 대화의 문 열리도록 평화공존 기반 차근차근 다질 것”

/사진 뉴스시스

▲조국 “김민석, ‘肅탄핵’ 모호한 메시지 발신 멈추고 표결 날짜 내놓길”
▲오세훈 “민주당, 저를 공격할 시간에 국민 삶들 여다보라”

▲김민석, 지역축제서 공연 도중 무대인사 논란에 “가수·관객께 죄송”
▲홍기난동 때마다 “순찰 강화” 외침…현실은 ‘인력 반토막’